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 Case Study of Campaig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윤정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한 책’ 독서운동의 주요 단계별 특성의 분석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1 공동체의 개념 - 어디에서 할 것인가?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2 목표의 설정 - 왜 할 것인가? |
| 2. ‘한 책’ 독서운동의 평가와 연구 | 3.3 ‘한 책’의 선정 -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
| 2.1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과 평가 | 3.4 독서와 토론 - 어떻게 읽고 토론할 것인가? |
| 2.2 선행연구 | 3.5 행사와 프로그램 -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 | 4.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의 실천과정에서 목표의 설정, 책의 선정, 독서와 토론 및 프로그램이라는 네 가지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시애틀, 시카고, 전국대상의 ‘The Big Read’, 우리나라의 서울, 청주 등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 책’ 독서운동은 대중독서운동으로서 갖는 일반적 특성 및 독서와 토론을 통한 리더리시와 커뮤니케이션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개별성과 고유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책’의 선정에 문학교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작성된 ‘한 책’의 독서 및 토론안내서와 프로그램은 문화적 콘텐츠로서 가치가 생겨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examined are the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conducted in Seattle, Chicago, and ‘The Big Read’, a nationwide ‘One Book’ campaign, supported by the NEA, in the U.S.A. and Seoul and Cheongju in Korea. Some differences as well as similarities were found in the goal setting, selection of books, strategies for reading and discussion, and programs of these ‘One Book’ reading campaigns. While, as a mass reading event, ‘One Book’ reading campaigns in various communities share the goal of promoting literacy and communication through reading and discussion, each ‘One Book’ campaign seems to show uniqueness in the criteria of book selection, reading and discussion guides, and the activities and programs, which make up cultural contents.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공공도서관, 지역사회 운동, 문화 콘텐츠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Public Libraries, Community Movement, Cultural Content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8일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국 시애틀에서 1998년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One Book, One City(한 책, 한 도시. 이하 '한 책'이라 부름)' 독서운동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중독서운동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은 2001년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를 계기로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고, 대대적인 미국 국내 및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영어권 나라들로도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영어권 나라에서는 처음, 2003년 가을 한국도서관협회와 서산시가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대상으로 '한 책' 독서운동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순천, 익산, 원주, 부산, 청주 등의 도시에서 시행되었고, 서울에서는 2005년과 2006년 한 도시가 아닌 한 도서관을 단위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 진행되었다.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는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하며,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북돋우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행위의 범위를 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윤정옥 2005). 또한 '한 책' 독서운동은 대개 한 권의 문학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된 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제 관련 활동과 토론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중매체를 사용함으로써(Fuller and Sedo 2005), 독서운동이 도서관을 벗어나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즉 '아웃리치(outreach)'의 한 형태로서 시도되고 있다는 특성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많은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서 공유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주요한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들을 보면, 이 독서운동이 분명히 발전 및 진화하면서, 개별화된 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어느 곳에서도 '한 책' 독서운동은 한 권의 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독서운동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갖는 한편으로, 각각의 지역사회가 설정한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를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 활동의 형태는 점차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책' 독서운동이라는 모형은 채택하되, 지역사회마다 독자적인 독서운동의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몇 개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 활동의 각 단계별로 드러나는 일반성과 개별성을 살펴보고, 하나의 "브랜드"로 확산되어가는 독서운동으로서 갖는 특성을 서술해보려고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라 함)가 제시한 "한 책, 한 지역사회: 범 지역사회 독서의 계획(이하 'ALA 지침'이라 부름)"(ALA 2003)에서

다루고 있는 ‘한 책’ 독서운동의 주요한 단계별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ALA는 이 지침에서 지난 몇 년 간 ‘한 책’ 독서운동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운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택하였던 주요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중독서운동을 위한 하나의 실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 책의 선정, 독서와 토론, 및 프로그램이라는 네 개 항목에 주목하여, ‘한 책’ 독서운동을 왜 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떻게 읽고, 토론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 ‘한 책’ 독서운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사항 및 개별 ‘한 책’ 운동에서 고유하게 적용된 사항들을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임의로 다섯 개 지역의 ‘한 책’ 독서운동 사례를 선택하였고, 문헌조사와 더불어 미국의회도서관 및 개별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 관련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외 사례로서는 최초의 ‘한 책’ 운동인 시애틀의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현재는 ‘Seattle Reads’로 바꿈)을 비롯하여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와 전국 규모의 ‘The Big Read’, 국내 사례로는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2005년 시행) 및 청주의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2006년 시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사회의 사례들도 포함하도록 한다.

2. ‘한 책’ 독서운동의 평가와 연구

2.1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과 평가

‘한 책’ 독서운동은 1998년에 처음 시작한 이후, 2002년부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여,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의 ‘한 책 독서운동(One Book Reading Promotion)’ 웹사이트에는 2003년 5월 당시 미국 38개주에서 9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004년 5월에는 49개주, 239개 프로젝트, 2005년 5월에는 316개의 프로젝트가 각각 등록되었던 것에 비해(윤정옥 2005), 2007년 1월 현재에는 미국 50개주 전체에서 모두 400여개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다. 2003년에 단 세 개의 지역사회에서 ‘한 책’ 운동을 수행했던 앨라배마주만 해도 베이 미넷, 데카투어, 페어호프 등 열한 개 지역사회에서 ‘한 책’ 운동이 수행되었고, 당시 열다섯 개였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4년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California Stories: Reading the Grapes of Wrath’를 포함하여, 2006년에는 모두 서른두 개 지역사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한 책’ 운동이 등록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2년부터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Canada Reads’를 포함하여 여섯 개의 프로젝트, 호주의 브리스번, 영국의 브리스톨과 스티븐에이지 등에서 각각 ‘한 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7).

최근 삼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던 영국 버밍햄 대학의 연구자들은 ‘한 책’ 운동과 같은 “대중독서행사(mass reading event)”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책 읽기를 “나누는(share)” 것이 하나의 “새로이 급격히 증대하는 문학적 현상(a new, proliferating literary phenomenon)”이라고 지적하였다(University of Birmingham 2006). ‘한 책’ 독서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 불과 십년이 안 되는 사이에 규모 면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하나의 문학적 현상으로까지 간주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독서운동이 이십일 세기 도서관계의 대표적인 ‘개혁(innovation)’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어도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물론 ‘한 책’ 독서운동이 그 목적이나 방법 등의 면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가 주관한 “Canada Reads”를 통해서 전국적 규모로 ‘한 책’ 독서운동이 사년 째 시행되고 있으며, 밴쿠버, 앨버타, 옐로우나이프, 위털루 및 온타리오 등의 지역에서도 개별적인 ‘한 책’ 독서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 이 같은 대중독서운동은 문화적 관습, 특히 이 경우에는 문학적 해석이라는 것이 세속화(vulgarisation)되고, 문학계에 “침투”한 “시상(prizes)과 쇼비즈니스 심리”에 영합한 것(Henighan 2002), 또는 ‘한 책’에 대한 열광이 “경쟁과 성공에 고착된 블록버스터 문화의 부산물”(MacSkimming 2003)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분명 ‘한 책’이라는 형태의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가치와 효과에 대하여 적어도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추진되면서, 이를 주도하는 공공도서관,

시 혹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 결집도, 그리고 독서환경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한 책’ 독서운동이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지역사회가 고르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윤정옥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책 독서운동’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독서운동을 일회적 행사가 아닌 연례적, 지속적 행사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2005년 12월부터 미국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하 NEA라 부름)가 지원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 책’ 독서운동인 ‘The Big Read’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NEA 2006), ‘한 책’ 독서운동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먼저 ‘한 책’ 독서운동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지역사회의 많은 구성원, 즉, 시민 개인, 단체, 기관 등이 도서의 선정, 실제적 독서와 토론, 재정 및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통합된 “공동체(community)” 문화운동으로서 진행되어 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윤정옥 2006).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에 따라 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계속 평가될 수밖에 없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속적 프로그램으로 ‘한 책’ 독서운동이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성공 혹은 효과가 어떤 형태로든 입증되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중단 혹은 도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NEA가 ‘The Big Read’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책’ 독서운동을 의미하는 “성공적인 ‘city reads’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천명한 것(NEA 2006)

도 ‘한 책’ 독서운동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공감
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한 책’ 독서운동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고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시건 주의 이스트랜싱(Watkins 2003a), 미
시시피 주의 잭슨(Sumner 2003), 버지니아 주
(Michalik 2004)와 같이 몇몇 특정한 지역사회
에서 수행된 개별적 ‘한 책’ 운동의 사례가 보고
된 것 외에는, ‘한 책’ 독서운동의 현황, 실천방
안 혹은 공과득실 등에 대하여 학술적인 관점
에서 논한 연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흥
미로운 사실이다.

영국 버밍햄 대학 미국 및 캐나다 학과(Depart-
ment of American & Canadian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의 Fuller와 Sedo
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Beyond the Book:
Mass Reading Events and Contemporary
Cultures of Reading in the UK, USA and
Canada’라는 삼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미국, 영
국, 캐나다의 대중독서행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독서를 공유
하기 위해 모이는가에 주목하여, 캐나다의 ‘One
Book, One Community,’ 미국의 ‘One Book, One
Chicago’ 및 영국의 ‘Liverpool Reads’ 등에 대
해서 살펴보면, 이 세 나라에서 나타나는 독
서의 관행, 독서 커뮤니티의 생성 및 문학소설
의 대중적 기능 등과 같은 주제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Fuller와 Sedo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 캐나다 남부온타리오주의 소

도시 세 곳 키치너/워털루/케임브리지의 ‘한
책’ 운동인 ‘One Book, One Community’에 참
여한 16명의 독자와 참여하지 않은 9명을 대상
으로 초점집단 및 일대일 인터뷰를 수행하고,
동시에 4주 동안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여, 지역
적 특성과 시민의 반응을 분석하였다(97명 응
답)(Fuller and Sedo 2004, 2005).

국내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을 우리나라에 도
입하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의 주요한 ‘한 책’ 운
동의 연혁, 발전 및 전반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해 수행한 사례분석 연구(윤정옥 2004),
그리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여섯 해 동안에
미국의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 현황 및 그동안
선정된 ‘한 책’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고, 지속
적, 집합적 독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한
연구(윤정옥 2005)가 있었다. 이용재(2006a)
는 우리나라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연계를
모색하며, 서산, 순천, 익산, 원주, 서울 및 부산
에서 수행된 ‘한 책’ 운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마다 상이한
운영주체, 즉,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청, 시민단체 등이 개입됨으로써 야기된 문제
점 및 도서선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된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가 보고되었고(김숙정 2004, 박미희 2004;
양동의 2004), 국내환경에 적합한 ‘한 책’ 독서운
동의 구체적 실천 및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윤정옥 2006; 이권우
2003, 2004; 이용재 2006a, 2006b).

3. '한 책' 독서운동의 주요 단계별 특성의 분석

'ALA 지침'(2003)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독서운동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전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목표의 설정; 파트너의 확보; 재정 지원 파트너의 확보; 예산 수립; 책의 선정; 작가의 수락; 프로그램 파트너 확보;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독자와 토론안내서 작성; 마케팅과 홍보; 프로그램 일정 수행; 각종위원회/자원봉사자 조직; 행사 체크리스트; 서명; 행사의 기록과 일정조정; 평가; 종료/프로그램 후 체크리스트.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한 책' 독서운동의 단계별 실천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목표의 설정, 책의 선정, 독자와 토론, 및 프로그램이라는 네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며, 먼저 '한 책' 독서운동의 운영단위인 공동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공동체의 개념 —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한 책' 독서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라고 번역될 수 있는 '커뮤니티(community)'의 개념으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한 책' 운동을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 공동체라는 개념은 한 나라와 같이 클 수도 있고, 한 학교와 같이 작을 수도 있는, 매우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그동안 '한 책' 독서운동의 경향을 보면, 미국의 시애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영국의 브리스톨,

호주의 브리스번, 우리나라의 서산이나 청주처럼 한 도시 크기의 지리적 공동체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한 학교, 한 학군, 한 대학, 한 직장처럼 작은 크기의 공동체에서도, 아니면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혹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같이 큰 지역에서, 간혹 캐나다와 같은 한 나라 전체에서도 한 책을 읽어왔고, 그만큼 다양한 규모와 범위의 지리적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책' 운동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1.1 임시적 공동체의 '한 책' 운동

지리적 공동체가 아닌 임시적, 단기적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한 책' 독서운동의 예로는 미국도서관협회(ALA) 연례 컨퍼런스에서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One Book, One Conference'를 들 수 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매년 6월 한주간만 모였다 흩어지는 집단이지만, 한데 모여 있는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한 책'을 읽고 있다. 2003년 6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분과 주관으로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애트우드의 'The Handmaid's Tales'를 읽으면서 처음 시작된 이 'One Book, One Conference'(ALA 2003b)는 이후 공공도서관협회(PLA), 학교도서관협회(AASL) 등 다양한 도서관 관종별 컨퍼런스, 펜실베이니아주, 미네소타주, 텍사스주 등 지역별 도서관협회 컨퍼런스들에도 확산되었다. 이 'One Book, One Conference'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한 책' 운동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한 책'을 읽고 즐긴다.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읽고 토론하기만을

갖고도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한다. 물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사서, 출판인, 문인 등 이미 책 읽기를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집단이라는 점도 있지만, 많은 시민 또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한 책’을 함께 고르고 읽으며 토론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3.1.2 단일 기관 단위의 ‘한 책’ 운동

단일 기관 단위 ‘한 책’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들 수 있다. 2005년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열여섯 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였고(서울문화재단 2006), 2006년에는 스물여섯 개 도서관이 참여하였다. 각 도서관은 각기 선정한 ‘한 책’을 갖고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박미영 2006).

사실상 대부분의 ‘한 책’ 운동이 공공도서관과 같은 단일 기관이 주관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기관의 규모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한 도서관이 ‘한 책’ 독서운동을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도서관 시스템에 속하는 여러 개의 도서관이 함께 일하면서, 개개의 도서관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시의 ‘One Book, One Los Angeles’는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APL) 시스템에 속한 팔십 여 개의 도서관이 ‘한 책’을 읽도록 함께 움직이고, 시카고 공공도서관도 칠십여 개의 분관을 포함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단일 기관은 결국 한 도서관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게 되고, 해당 도시나 카운티 같은 지리적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규모이다.

그에 비해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은 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서울에서 열여섯 개의 공공도서관이 그야말로 ‘홀로’ 몇 십만의 잠재 독자층을 대상으로 각자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 독자층을 정의하며, 별도로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인력, 시간, 자원의 배분 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다. 그래도 ‘책 읽는 서울’이라는 큰 행사의 틀 안에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여건 하에서나마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3.1.3 전국 규모의 ‘한 책’ 운동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 책’ 독서운동의 대표적 사례로는 캐나다의 ‘Canada Reads’를 들 수 있다. ‘Canada Reads’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공영성을 가진 방송매체가 활자매체, 그리고 캐나다 문학과 작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한 책’을 선정하기 위한 토론을 방송함으로써 책 선정과정조차도 하나의 축제이자 프로그램이 되게 하며, 본문의 낭송 및 방송극화 등 방송매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에게 접근하고 활자매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윤정옥 2004).

미국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All America Reads’라는 ‘한 책’ 운동이 수행된 적이 있다. 버지니아주 인문학재단 버지니아 도서센터가 주관한 이 ‘한 책’ 운동은 2001년 ‘Wish You Well’(David Baldacci 저)과 2003년 ‘The Bean Trees’(Barbara Kingsolver 저)를 각각 읽도록 하였는데, 교육자 및 일반 독서클럽의 참여

도 독려하긴 하였으나 일차적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All America Reads 2003).

전국적인 규모의 ‘한 책’ 독서운동은 미국에서 2005년 12월 NEA가 ‘The Big Read’라고 불리는 독서진흥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NEA는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및 Arts Midwest와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지역사회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문학작품 읽기(literary readings)”를 장려하고, “미국문화의 중심에 독서를 회복(to restore reading to the center of American culture)” 시키겠다고 하였다(NEA 2006b).

원래 ‘The Big Read’라는 이름은 영국의 BBC2 방송이 2003년 10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방송한 라디오 시리즈의 제목이다. 이 시리즈에서 웹, SMS, 전화 및 인터랙티브 서베이를 사용하여 영국인들이 애독하는 소설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상위 21위까지의 작품은 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RNIB)와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NLB)와 협력하여 오디오 북 및 점자책으로 간행함으로써, 문학작품 읽기와 듣기를 장려하고자 하였다(BBC 2003). 미국의 ‘The Big Read’는 영국에서 사용한 ‘The Big Read’라는 이름을 차용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고전문학 읽기를 권장하면서, 시행방법으로는 자국의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The Big Read’는 첫째 시범사업으로

인구규모가 7,000에서 4백만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열 개 기관¹⁾을 선정하여 \$15,000부터 \$45,000의 지원금을 주고, 2006년에 십대와 성인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4주 혹은 6주 단위의 지역사회기반 독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이차연도의 일주기(2007년 1월-7월)에는 모두 72개 지역사회를 선정하였고, 이주기(9월-12월)에 다시 100여 개의 다양한 크기의 지역사회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 책’ 독서운동은 한 권의 책이 있고, 그것을 읽고 생각을 나눈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면, 이처럼 형태, 크기, 성격이 다양한 어떤 공동체에서든, 어디에서든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책’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개혁이며 “브랜드”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확고한 독서운동의 모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²⁾

3.2 목표의 설정—왜 할 것인가?

‘한 책’ 독서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목표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을 왜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책을 선정하고 읽을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 문학단체, 도서관, 커뮤니티 기관 등 지역사회의 신청기관(organization)을 단위로 선정하였으므로, 지역사회보다는 ‘기관’의 개념을 중시함.
2) Fuller와 Sedo(2004, p.7)는 “One”이라는 주제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문화기관과도 연결되면, ‘One Opera, One Community,’ ‘One Theatre, One Community’ 같은 활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3.2.1 목표의 종류

‘ALA 지침’(2003)은 각 도서관에서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목표, 독자층 목표, 주제/컬렉션 목표, 지역사회 목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목표는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도서관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운동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다. 독자층 목표는 ‘한 책’ 독서운동을 누구를 위해 할 것인가? 이를테면, 대상 연령층, 인구 통계적 구성 혹은 도서관 이용여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할 것인가? 예컨대, 대상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위해서인가? 왜 이 독자층인가? 이 독자층의 관심거리와 요구는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는 등의 사항이 고려해야 한다.

주제/컬렉션 목표는 이 주제가 도서관이나 지역사회 문제들과 관련이 되는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컬렉션의 어떤 영역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한편, 지역사회 목표는 어떤 주제/의제가 지역사회에 적합한가? 및 어떤 지역사회 단체들이 이 목표의 일부를 공유하는가? 하는 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3.2.2 목표의 사례

‘ALA 지침’에서 인용한 전형적 목표의 사례 가운데, 미국 미주리 주 캔사스시티의 ‘United We Read’ 프로그램의 목표는 “우리 지역사회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to get our community talking and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이라고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모니카시는 ‘Citywide Reads’ 프로그램에서 “리터러시를 복돋기: 세대에 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기: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공동체라는 개념을 촉진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The Mayor’s Book Club’을 시작하면서 “리터러시를 복돋고, 지역사회와 토론을 촉진한다”고 하였다(ALA 2003).

이처럼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가 어떤 형태 혹은 문구로 설정되든, 자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리터러시와 커뮤니케이션이다. 독서운동의 본질이 독서이고 리터러시인 것은 당연한 바이지만, 토론을 통해 사람들 간의 대화, 소통,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것이 ‘한 책’ 운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독서와 토론이라는 ‘한 책’ 독서운동의 전형적 목표는 일찍이 시애틀의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과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에서 설정된 바이다. 시카고는 “... 동료,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 도발적인 토론을 불붙이는 범도시적 독서클럽을 만들어 시카고에 ‘독서의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하였고(CPL 2001), 이 목표는 또한 이후의 수많은 ‘한 책’ 독서운동에서 공유되었다.

순수한 책 읽기를 강조한 사례로는 청주시의 ‘2006 책 읽는 청주’를 들 수 있다. ‘책 읽는 청주’는 “...청주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책과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남녀노소가 공감하고 화합하며 이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을 그 목표로 하였다.

‘책 읽는 청주’는 여타 ‘한 책’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독서와 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즐겁게 책을 읽는 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보다 순수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시민에게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즉, “토론하기 위해 책을 깊이 읽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책을 읽자”고 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 p.13).

‘한 책’ 운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운영주체가 누구인가가 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Fuller와 Sedo는 캐나다 온타리오지역의 ‘One Book, One Community’를 분석하면서, 이 독서운동이 공공도서관이 거의 전적으로 주도하는 미국과는 달리, 공공도서관 사서, 서적상, 시의 대표 및 문학지의 편집자를 포함하는 지역의 보다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사서는 인쇄 리터러시를 증대시키고,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독자의 경험을 다양화 시키고 싶어하는 한편, 서적상과 편집자는 선정된 책을 중심으로 한 공유된 독서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면-대-면(face-to-face)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책’ 운동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책, 커뮤니티 및 독서라는 개념이 대표하는 가치관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Fuller and Sedo 2005). ‘한 책’ 독서운동이 지역사회에서 공유되고 공감된 목표하에 수행되지 않으면, 어쩌면 절반의 성공으로 멈출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3.3 ‘한 책’의 선정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수많은 읽을거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책’으로 선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소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애틀의 ‘If All of Seattle...’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책이 잘 써졌고, 기본적인 인간의 진실을 탐구한다는 것”이지만, “읽기 좋은 책”과 “토론하기 좋은 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SPL 2003)에서 기존의 독서운동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도서평론가 이권우(2003)는 ‘한 책’ 독서운동이 그동안 수많은 독서운동에서 사용되었던 선정도서의 기준을 바꾸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전까지 독서운동에서 권장되었던 “양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윤리관을 담고 있으며, 문학작품일 경우에는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것”을 일컫었던 한편, ‘한 책’ 독서운동을 위한 ‘한 책’은 작품성이나 책이 갖는 메시지보다 “토론의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책 읽기라는 “소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생산과정을 지향함으로써 독서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ALA 지침’(2003)에서 제시한 ‘한 책’ 선정시의 고려사항은 여러 ‘한 책’ 독서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보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권우가 지적한 바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책을 고를 것인가 결정할 때, 전국이나 지역에서 잘 알려진 작가

를 고르는 것이 보다 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고, 강력한(끌리는) 쟁점, 인물 및 주제를 갖는 것이 토론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드시 양서여야 한다든지, 노벨문학상, 풀리처상이나 부커상 수상작과 같은 지명도를 우선적 조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 등이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읽었던 ‘한 책’들을 보면, 베스트셀러나 고전도 있지만, 대체로 미국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유색인종과 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주제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삶을 체험하게 하고, ‘공유된 경험의 통로’를 갖게 하는 데 적합한 책들이 많이 있었다(윤정옥 2005).

3.3.1 목표의 중요성

‘한 책’ 독서운동의 프로그램 목표는 어떤 책을 선정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 책’ 운동의 효시인 시애틀의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을 들 수 있다. 이 ‘한 책’ 운동은 시애틀공공도서관 워싱턴도서관센터가 주관한 “지도 따라 읽기(Reading Across the Map)”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목표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장려” 한다는 것이었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따라서 여기에서 선정되는 ‘한 책’의 작가는 계속해서 한국계(이창래: 2003년), 남미계(이사벨 아엔데: 2004년), 일본계(줄리 오즈카: 2005년), 이란계(마제인 사트라피: 2006년), 인도계(쥬파 라히리 2007년) 등 다양한 민족 배경을 갖고 있다(SPL 2006).

책의 선정은 특히 대상 독자층의 범위를 어

떻게 정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ALA 지침’(2003)에 따르면, 많은 도시들이 가장 넓은 토론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생 이상의 읽기 수준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한 책’들의 성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이들은 또한 청소년이 읽고 참여하기에도 무방한 수준의 것들이다(윤정옥 2005). 물론 많은 지역사회에서 독자층을 어른 혹은 청소년 사이에서 선택하였고, 시애틀처럼 성인과 청소년용으로 다른 책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사회 전체 독서를 청소년 작품에 집중하면, 많은 어른들이 ‘한 책’ 독서운동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ALS 2003). 그러한 예는 ‘2005 책 읽는 서울’을 통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수행한 도서관들이 경험하였다. 이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한 열여섯 개 도서관 가운데 열두 개 도서관이 어린이용 책을 선정하여 읽음으로써, 결국 ‘한 책’ 운동의 대상독자층이 어린이에게로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령층에 따라 각기 ‘한 책’을 선정하는 지역사회도 종종 눈에 띈다. 먼저 원주에서 2006년에 ‘배려’(한상복 저)와 ‘어린이를 위한 배려’를 각각 선정한 사례, 역시 2006년에 청주에서 ‘압록강을 흐른다’를 어른용 번역본(전혜린 역)과 청소년용 번역본(엄혜숙 역)으로 나누어 읽었던 사례와 같이 대상 연령층에 따라 ‘한 책’의 다른 버전을 읽기도 하는데, 대개는 아예 다른 ‘한 책’을 선정한다. 시애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별도로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고 2002년에 ‘What If All Kids Read the Same Book?’을

진행하면서, 루이스 사처의 '구멍(Holes)'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SPL 2002). 일리노이주에 있는 위니트카-노쓰필드 지역의 'One Book Two Villages'는 첫 해인 2004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어른과 어린이 책을 각각 한 권씩 선정하여 읽고 있다(Winnetka-Northfield Public Library District 2007). 역시 일리노이 주의 네이퍼빌시는 네이퍼빌 공공도서관 주관으로 2003년부터 'Naperville Reads'를 지행하면서, 2006년에는 어른용(*My Sister's Keeper*, Jodie Picout 저), 어린이용(*The Miraculous Journey of Edward Tulane*(Kate DiCamillo 저)으로 각각 '한 책'을 달리 하였다. 이 도서관은 더 나아가서 2007년에는 어른용 소설(*Snow Flower and the Secret Fan*, Lisa See 저), 어른용 비소설(*Three Cups of Tea*, Greg Mortenson 저), 그리고 어린이용 책(*The Writings of Joseph Bruhac*, Joseph Bruhac 저)으로 나누어 각 장르별 '한 책'을 읽도록 하고 있다(Naperville Public Library 2007). 메인 주 중부의 배쓰-브룬스윅 지역의 Patten Free Library, Curtis Memorial Library, Topsham Public Library 및 Wiscasset Public Library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Midcoast Community Read'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 책'을 읽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어른과 청소년을 위한 책을 각기 선정하였다가, 2007년에는 'The Big Read'의 일환으로 어른을 위한 책을 선정한 한편(*Grapes of Wrath*, Karen Hesse 저)과 어린이(그림책: *Leah's Pony*, Elizabeth Friedrich 저)로 다시 나누어 책을 선정하고 있다(Midcoast 2007).

3.3.2 '한 책'의 의미

왜 꼭 한 책이어야만 하는가? 시카고에서 'One Book, One Chicago'를 시작하기 전에 시카고 공공도서관 사서들조차 그 같은 의문을 갖고, 시카고와 같이 크고 다원화된 도시에서 보다 넓은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한 책이 아니라 3-5권의 책을 선택한다거나, 어른 책 하나와 어린이 책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단 한 권의 책을 골라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읽게 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 책'으로 확정하였다(CPL 2001a).

'한 책' 독서운동에서 굳이 '한 책'을 선정하는 이유에는 책을 읽고 토론할 뿐만 아니라 '한 책' 및 그 책의 주제에 집중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시애틀이 'If All of Seattle...'을 2004년에는 'Seattle Reads...'로 바꾸고, '한 책'이 아닌 '한 작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작가의 여러 작품을 동시에 읽고 토론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히고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해 남미 출신의 작가 이사벨 아옌데를 대표 작가로 선정하여 *My Invented Country: A Nostalgic Journey Through Chile*(2003) 등 여섯 권의 대표작품을 읽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한 책을 읽는 것으로 돌아가 일본계 미국인 작가인 줄리 오츠카의 작품을 읽도록 한 'Seattle Reads *When the Emperor Was Divine*'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한 작가가 아닌 '한 책'을 선정하고 있는 데서, '한 책'을 매개로 한 집중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3 선정조건의 중요성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독자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한 책’ 선정기준을 엄정히 정해도 종종 그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책을 고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근접하게 조건을 충족시키는 책들이 선택되게 마련이다. ‘책 읽는 청주’는 맨 처음 책 선정의 단계에서 가능한 한 청주 혹은 충청도의 지역적 연고나 특성을 갖는 작가의 작품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 관심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고,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 세 가지의 조건에도 모두 부합하는 책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는 “보편적 한국적 정서를 그리고 있으며, 고전이면서도 신선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을 포괄하는 다양한 독자층에 적합하며” 그밖에도 책과 함께 시청각자료, 다큐멘터리, 사진 및 전기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갖추었기에 선정되었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

한 예를 더 들면, 부산의 ‘원북 원부산 운동’이 제시한 책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원북 원부산 운동 추진위원회 2005):

1. 남녀노소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2. 사람들이 원 북(One Book)을 통해서 토론하기 좋은 책
3. 작가와의 만남, 심포지움, 토론회(인터넷 북 카페 포함),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낭독회, 공연, 사진전, 연극, 영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에 적합한 책
4.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5.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책
6. 부산의 문화, 정서, 역사 등을 느낄 수 있으면 좋으나 필수적 사항은 아님
7.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고, 느끼고,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8. 가급적 최근에 발간되어 감동과 함께 시의성도 있는 작품
9.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목록 참조
10. 역사와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시민단체의 도서목록 참조

부산은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2005년 김형경의 ‘사람풍경’, 2006년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각각 ‘한 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주로 후보도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었지만, 실제로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발간되었거나, 베스트셀러로서 대중매체에 많이 언급된 책들이 유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지명도 때문에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뛰어난 점 때문에 ‘한 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혹은 스테디셀러가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앵무새 죽이기’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에서는 선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시카고 시민/사람들이 매일 다루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반영한다.
- 소설/비소설을 포함하여 다양해야 한다 (반드시 베스트셀러일 필요는 없다).

- 다른 언어로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쇄본으로 널리 구할 수 있어야 한다(도서관과 서점들이 수천 권을 구할 수 있도록).
- 성인과 청소년 둘 다에게 적합해야 한다.
- 시카고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쉬워야 한다: 도서토론티프, 작가방문, 연극, 영화, 전자책 등.
- 도발적 토론을 불붙일 수 있어야 한다 (CPL 2001).

‘앵무새 죽이기’도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 했다. 예를 들어, 시카고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든지, 작가가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밖의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시켰고, 무엇보다도 “시카고 및 오늘날의 세계에 관련된 문제, 즉 인종주의와 관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CPL 2001). ‘앵무새 죽이기’는 실제로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한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고, ‘The Big Read’에도 선정되었다. 개별 지역사회들이 고유한 목표에 따라 ‘한 책’을 선정하고 있지만, 현대 고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뛰어난 문학작품의 가치는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3.4 문학고전의 중요성

문학고전을 ‘한 책’으로서 선정하여 읽는 것은 ‘The Big Read’에서 크게 강조되는 바이다. ‘The Big Read’는 그 목표가 “위대한” 문학작품의 독서를 고양하자는 것인 만큼 시범단계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도시의 독서운동 프로그램과 선정도서목록을 분석

하여 책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미국문학의 고전(American literary classics)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독자층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고른다는 기준을 가졌고, 일차 및 이차연도에 선정된 책들은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The Big Read’에서는 저명한 작가, 학자, 사서, 비평가, 예술가 및 출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자동아리(Readers Circle)”가 있고, 이들은 앞으로 미국의 지역사회들이 읽을 만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스무 명으로 구성된 이 “독자동아리” 회원으로는 시애틀 ‘한 책’운동의 추진자인 사서 낸시 필, 미국의회도서관장인 제임스 H. 빌링턴, 전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장 케빈 스타, 작가 겸 언론인 짐 레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NEA 2007).

‘The Big Read’에 선정된 지역사회는 미리 지정된 네 권의 책 가운데 하나를 읽도록 하였다. 지정된 책은 ‘화씨 451도(Fahrenheit 451)’(Ray Bradbury 저),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F. Scott Fitzgerald 저),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Their Eyes Were Watching God)’(Zora Neale 저) 및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Harper Lee 저)였다. 이차연도 일주기에선 첫해의 네 권의 책과 더불어 ‘마이 안토니아(My Ántonia)’(Willa Cather 저), ‘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Ernest Hemingway 저),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John Steinbeck 저) 및 ‘조이럭 클럽(The Joy Luck Club)’(Amy Tan 저)이 추가되었다. 이주기에 다시 네 권의 책을 선정하여 추가하며, 계속 선정도서의 리스트를 확장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화씨 451도’와 ‘앵무새 죽이기’는 ‘The Big

Read’에 선정되기 이전에도 미국 전역에서 ‘한 책’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된 책들인데(윤정옥 2005), ‘The Big Read’에 포함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저명인사가 고른 몇 권의 책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골라 ‘한 책’을 읽고 토론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The Big Read’와 같은 형태의 독서운동이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칠십 년대부터 국가가 주도한 ‘자유 교양도서 읽기’, ‘반공도서 읽기’와 같은 관제 독서운동을 통해 의식화를 강요당했고, 언론, 출판사, 저자, 서점 등의 이해가 개입된 상업적 공중파 방송이 골라준 이른바 ‘국민도서’ 읽기 운동과 같은 것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바가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한 책’을 읽자고 하는 제안이 순수하게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3.3.5 지역의 중요성

‘한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가치관이고, 둘째는 지역작가의 중요성이다.

먼저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특별한 가치관을 책 선정에 반영한 대표적 사례는 원주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선정의 기본원칙으로 “생명존중, 환경보호, 공동체 사랑의 정신이 들어 있는 책”을 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원주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도 박경리 작가, 김지하 시인 등과 같이 원주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내세우는 “생명

존중”의 사상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으로써 “원주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 밖에 원주의 기준은 문학 장르는 운문이나 산문 어느 것이든 좋고, 내용이 도덕적, 정서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부원칙으로는 전 시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300쪽 이내의 단행본,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 토론이 가능한 책, 구하기 쉬운 책(절판된 책 제외), 이해가 빠르고 재미있는 책, 그리고 삽화의 작품성도 수준이 높은 책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원주시평생교육정보관 2004).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004년 첫 번째로 선정된 책은 ‘줍쌀 한 알’(최성현 저)이었다.

‘한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은 그동안 많이 반영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들이 그 도시, 주 혹은 지방 출신의 작가에 의한 작품을 고름으로써 자신들의 문학적 전통을 기리고자 하였다. 그런 작가들은 지역상황을 다루거나, “우리 동네 사람들(native sons and daughters)”이 쓴 책들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즉각적으로 연결될 잠재성을 가진다고 평가된다(ALA 2003). 대표적인 예로는 텍사스 주에서 2002년 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One Book, One Texas’에서 어른들이 읽을 책으로 텍사스 주 출신 작가인 Larry McMurtry의 ‘Lonesome Dove’를 선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1986년 풀리처상 수상작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전의 텍사스 레인저였던 두 사람의 카우보이가 소 떼를 끌고 가는 여정을 그리면서, 역사 속에서 진정한 영웅이었던 텍사스 레인저의 인간적 면모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텍사스 사람들이 읽기에 적합

하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2004년 'The Gates of the Alamo'(Stephen Harrigan 저)를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수많은 예를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일찍이 2000년부터 시행된 뉴욕주 버팔로 시의 'If All of Buffalo Read the Same Book'에서 2005년 뉴욕에 살며, 뉴욕을 섬세하게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Paul Auster의 회고록 'The Invention of Solitude: A Memoir'를 선정한 것도 들 수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7). 그러나 이처럼 작가나 작품의 지역 연고를 고려하는 것이 지역적 배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시카고와의 연관성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연고를 가장 먼저 주장하였던 시카고도 반드시 그 지역 출신 작가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않았다.

3.4 독서와 토론—어떻게 읽고 토론할 것인가?

'한 책' 운동의 핵심에는 독서와 더불어 토론이 있다. 독서와 토론안내서 및 토론질문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4.1 독서와 토론 안내서

위대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환경,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그 작품에 대하여 친구, 가족, 이웃과 이야기하는 것은 독서의 경험에 풍성함과 깊이를 더해준다(CPL 2001). '한 책' 독서운동에서 읽고 토론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안내서(guidebook)이다. 안내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 대하여,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그리고 '한 책' 운동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열쇠가 된다. 안내서는 그 체제가 반드시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토론 그룹을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시애틀의 '한 책'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읽고 토론할 대상인 '한 책'을 위하여 '독서그룹 연장통(Reading Group Toolbox)'라고 불리는 독서토론 자료집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에 대한 소개, 저자와의 대화, 선정된 책을 위한 토론질문, 독서클럽 지도안(How-To's) 및 추천도서를 포함한 이 '연장통'은 지금까지 독서나 토론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사람이라도 '한 책'을 읽고, 한데 모여 토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히 토론을 위하여 책 고르기, 토론하기 좋은 책의 특성, 토론을 위한 독서의 방법, 토론의 인도, 토론을 위한 질문의 보기 등을 포함한 '독서클럽 지도안'은 이후 다른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윤정옥 2005).

'ALA 지침'(2003)은 대체로 독서와 토론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권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개요; 프로젝트 행사의 일정; 저자의 약전(略傳); 책의 역사적 맥락; 토론 질문과 활동; 책에 관한 중요한 평론; 서평, 인용문 등; 후원에 대한 감사; 추천 및 참고 자료. 시애틀의 '연장통'과 마찬가지로 시카고의 '자료안내서(Resource Guide)'도 책자형으로 배포되고,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되는데, 16페이지로 된 '앵무새 죽이기'의 '자료안내서'에는 시장 데일리, 하퍼 리와 그레고리 펙의 편지, 저명한 시카고 시민의 헌사, 프로그램과 특별행사의 일정표, 저자의 약전과 소설의 역사적 맥락, 1960년

‘시카고 트리뷴’지(誌)의 ‘앵무새 죽이기’ 서평, 토론질문과 활동, 추천자료, 감사의 글 및 프로그램 평가양식이 포함되어 있다(CPL 2001).

‘책 읽는 청주’의 토론안내서 ‘압록강은 흐른다 워크북’은 ‘ALA 지침’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전형적 요소들을 포함하였고, 작가와 작품, ‘한 책’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할 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발간된 ‘압록강을 흐른다’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옮긴 전혜린과 어린이용으로 옮긴 엄혜숙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써, 텍스트 번역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

토론안내서의 내용은 ‘한 책’ 독서운동마다 다소 상이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 토론 질문 작성을 위한 텍스트 분석, 및 문학비평, 전기 자료, 참고문헌 등에 대한 폭넓고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므로, 그 자체가 연구와 같은 비중을 갖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조사한 토론안내서, 또한 동일한 책에 대해서 여러 지역사회에서 다른 내용, 형식, 관점을 갖고 마련한 토론안내서들 자체가 또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4.2 토론 질문

여러 지역사회에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토론의 질문은 각기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책인 ‘앵무새 죽이기’의 토론 질문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006년 봄 ‘One Book, One Community: Lee County Reads’를 통해 ‘앵무새 죽이기’를 읽었던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는 모두 아홉 개의 토론 질문

을 제시하였다(Lee County 2006). 리 카운티는 질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아마존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론사이트인 ReadingGroup.com에서 가져왔다. 질문들 가운데 두 개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의 앞부분에서 스카우트, 잼과 딜은 부래들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부의 과거의 폭행 이력은 그가 잼과 스카우트를 밥 유엘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전조하는가? 이러한 반복적인 공격성이 그를 다소간 동정적인 인물로 만드는가?

2. (하퍼) 리의 책의 제목은 에티커스가 자기 자녀들에게 공기총을 주고, 그들이 원한다면 모든 과량어치는 쓸 수 있지만, “앵무새를 쏘는 것은 최악이다”라고 말했을 때 암시된다. 책의 끝부분에서 스카우트는 부를 밥 유엘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의 “죄”를 “앵무새를 쏘는 것”에 비유한다. 당신은 이 소설에서 부가 유일한 결백한 사람 혹은 앵무새라고 생각하는가?

이 토론 질문들은 한 의제 안에서 관련된 서너 개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의견과 인상을 논할 수 있게 한다. 그에 비해 시카고에서는 ‘앵무새 죽이기’의 토론지침에서는 언어, 등장인물, 관점, 배경, 구성 및 상징주의의 여섯 개 의제로 구분하여 모두 열 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CPL 2001b). 또한 소설을 통하여 언급된 다른 문학 작품들, 미신,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특정한 뜻을 자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추가로 토론할 요점을 열 가지 제시하였고, 아울러 영화를 위해 토론할 요점도 제시하였다.

먼저 등장인물과 상징주의에 관한 질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2. 소설의 많은 등장인물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 성별, 인종, 사회적 계급 등의 결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정관념을 갖는다. 어떤 인물들이 고정관념의 희생자들인가? 그들 중의 누가 개인성을 보이고,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의 거짓됨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어겼는가?

3. 마지막에 부 래들리를 체포하는데 실패하면서 보안관 테이트는 유엘의 살인에 대한 진실을 아는 애티커스가 그러는 것처럼 법을 어기고 있다. 당신은 애티커스의 행동이 불법적이며 “그릇되다”고 하는 일부 비평가들에 동의하는가?

(2) 상징주의

10. 소설에서 중심적 상징은 미스 머디가 해가 없고 심지어 남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생물이라고 서술하였던 앵무새이다. 부 래들리와 탐 로빈슨은 사회에 맡겨진, 기본적으로 결백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부에게 잔인하였고, 궁극적으로 탐은 살해되었다. 앵무새의 상징은 또한 순진한 어린애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성인이 된 화자이기도 한 스카우트를 지목한다. 당신은 ‘앵무새 죽이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상징 역할을 한 추가적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리 카운티 독서토론의 세 번째 질문은 사실

상 시카고의 열 번째 질문에서 답해졌다. 이 두 곳의 경우만 보아도 같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질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카고의 ‘앵무새 죽이기’가 제시한 영화를 위해 토론할 요점 또한 흥미롭다.

1. 영화를 책과 비교하라, 영화를 보는 것이 독서의 경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2. 영화가 무엇을 바꾸거나 제외했는가? 당신은 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삭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사형을 가하는 군중이 재판 전에 애티커스에게 맞설 때, 스카우트의 천진한 간섭은 폭력의 위협을 일소한다. 소설의 15장에서 발생한 이 장면을 영화와 비교하라.

3. ‘앵무새 죽이기’가 어떤 다른 영화를 생각나게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비슷한가? 그들이 어떻게 다른가?

4. 영화는 당신이 본 다른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표현한 어린 시절의 이미지에 비교되는가?

이 질문들은 책을 읽고 난 후와 같이 다양하고 심화된 토론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나,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책에서 표현된 중심적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한편, 책이라는 활자 텍스트 자체 및 다른 영화나 TV 프로그램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한 책’ 독서 운동에서는 이처럼 책과 다른 매체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또한 활자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층으로 하여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연령층을 독자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한 책’에 대해서도 다른 형태의 토론 질문이 제시될 수 있다. 2003년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은 서산에서는 중고등학생 및 일반용 질문을 열아홉 개, 초등학생용 질문을 열네 개 만들었다.³⁾ 중고등학생 및 일반용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잎썩은 양계장 안에서는 더 이상 만져보지도 품지도 못할 알 낳기를 거부하고, 양계장 밖에서는 이제 알을 낳을 수 없는데도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겠다고 결심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잎썩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이를 닭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 잎썩을 피고인으로 설정하여 모의재판을 실시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2. 수탉과 헛간 식구들은 잎썩에게 하룻밤을 쉬어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다음날에는 잎썩을 쫓아내고 맙니다. 그들이 잎썩을 쫓아낸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집단 이기주의라는 측면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핵 폐기장 건설반대(넘비현상)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왕따문제 등과 연결해 생각해 보고, 타당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이를 모색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용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잎썩은 마당을 왜 나왔나요?

...

6. 왜 잎썩은 자신의 몸을 족제비에게 내주었을까요?

...

8. 잎썩은 끊임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계장에서 마당 그리고 저수지로 옮겨가면서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자신의 마당 또는 저수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 책’을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책 읽는 청주’의 ‘압록강은 흐른다’ 토론을 위해서는 모두 열여섯 개의 질문이 제시되었는데, 초등학생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질문의 형태는 매우 평이하였고, 몇 개 질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제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3. 여러 등장인물들 가운데, 주인공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이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10. 이 책의 내용과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

3) 서산시립도서관, 2003. 서산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 “마당” 파고들기: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서산시 선정도서 워크북.

14 이 책은 당신이 읽었던 다른 책들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룬 책을 읽은 적이 있는가? 혹은 주제는 같지 않지만, 같거나 비슷한 느낌을 주는 책이 있는가?

...

실제로 '책 읽는 청주'에서 토론그룹의 일지를 보면, 워크북에서 예시한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 질문에서 파생된 다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토론하기도 하였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b).

시에틀의 '연장통'에서는 "토론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순전히 재미로 읽는 것과는 다르다. 질문거리를 생각해보고,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이야기에서 자신을 상상하고, 문체와 구조를 분석하고, 문학작품에서 개인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작품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이 같은 맥락에서 '한 책' 운동의 토론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질문은 반드시 답해야 할 과제 또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읽으면서 토론할 거리를 생각해 보도록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 책'을 단서로 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도울 수만 있다면, 길잡이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5 행사와 프로그램 —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 또한 중대한 요소이

다. 'ALA 지침'은 '한 책' 독서운동이 성공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창의적이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ALA 2003).

3.5.1 프로그램의 범주

'ALA 지침'(2003)은 '한 책' 독서운동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크게 독서토론, 학술 강의, 저자 초청 행사, 전시회, 예술 프로그램, 학교 연관 프로그램 등으로 범주를 나누고 있다. 또한 각 범주 안에서, 예를 들어, 예술 프로그램 범주에서 작품 당시, 책의 주제나 지역 관련 음악을 연주하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세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The Big Read'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보면, 다소 다른 관점에서 범주를 나누고 있다. 즉,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발대 행사(kick-off event), 구체적으로 책에 바쳐진 주요 행사, 시발점으로서 책을 사용한 행사 및 다양한 장소에서 광범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회가 있다. 이 가운데 책에 바쳐진 주요 행사는 패널 토론회, 강의, 대중낭독 등이 있고, 책을 사용한 행사로는 필름 상영, 극장 낭독 등이 포함된다. 'The Big Read'가 발대행사 및 독서토론 외에 '책에 바쳐진' 행사와 '책을 사용한' 행사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자는 선정된 특정한 책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고, 후자는 책을 매개로 한 파생적 활동이다. 예를 들어, 대중낭독이 본문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라면, 극장낭독은 극

화하여 낭독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창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Big Read’에서 각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과 인쇄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아웃리치 캠페인, 작품 토론을 위한 자료, 그리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그 밖에 행사와 프로그램의 제작은 각 지역사회가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이처럼 ‘한 책’을 읽는 여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및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누적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독서운동을 넘어선 문학적, 문화적 자산의 증대라는 결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3.5.2 기존 프로그램의 활용

‘한 책’ 독서운동과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연결시킨 전형적인 예로는 2005년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들 수 있다. 이 독서운동에 참여한 열여섯 개의 도서관이 시도한 프로그램은 독서토론회(13개관, 81.3%), 작가와의 대화/토론, 강연회 등(12개관, 75.0%), 워크북 제작(5개관, 31.3%), 독서토론 훈련(3개관, 18.8%), 전시회 및 영화상영회(11개관, 68.8%), 각종 공모전(11개관, 68.8%), 책 만들기(5개관, 31.3%), 독서퀴즈대회(4개관, 25.0%), 독서 릴레이(4개관, 25.0%), 각종 공연(5개관, 31.3%), 낭독회(2개관, 12.5%) 등이다. 사실상 워크북 제작이나 독서토론 훈련 같은 것은 특별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를 보아도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서울문화재단 2006). 이들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이미 상당수의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들

이다. 도서관들은 ‘한 책’ 독서운동 기간 중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선택된 한 책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효과를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외부 재단의 지원을 받은 각 참여 도서관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도 크지 않고, 시간과 인력 등의 자원이 제한되며, 행사기간이 짧은 형편에서 사실상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과 시행은 어쩌면 가능하지 않았다.

한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한 책’은 전체적으로 책 자체와 관련된 독자 혹은 참여자의 글쓰기를 매우 중시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서산, 순천, 원주, 청주, 서울, 부산 등 어느 곳에서 진행된 ‘한 책’ 운동에서도 반드시 선정된 책에 대한 독후감을 모집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주의 ‘한 도시 한 책’은 첫 해 이후 매년 행사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정된 ‘한 책’에 대한 독후감 공모는 계속하고 있다. 2006년 청주의 ‘책 읽는 청주’는 이미륵 선생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으면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는 한편, 청주의 대표적 자연공간의 하나인 무심천을 소재로 ‘무심천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수필을 공모하였다. ‘압록강은 흐른다’와 같은 시대 당시의 청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동일한 시대 상황에 대한 회고담, 일화, 들은 얘기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한 수필을 공모하였으나, 실제 응모는 매우 저조하였다. 그보다는 전형적인 독후활동인 독후감 공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책 읽는 청주 2006).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물론 ‘한 책’을 대상으

로 한 글쓰기가 있지만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 절에서 예시한 '앵무새 죽이기'의 행사에서도 본문의 한 문장을 단서로 하여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했고, 캘리포니아 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나 다른 곳의 사례에서도 '한 책'은 글쓰기의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한 책' 운동에서처럼 독후감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확장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의 한정성이라는 문제는 좀 더 사례를 수집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3 문화적 콘텐츠의 확대

The Big Read 웹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행사 일정'(NEA 2007b)를 보면 매일 전국에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곳에선가 진행되고 있는 독서관련 행사를 모두 소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가까운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이 일정에서 선정도서별, 주별, 지역사회별로 각각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07년 2월 1일 전국에서 '앵무새 죽이기'를 주제로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The Big Read coming soon!" 테이블 텐트(table tents) 설치, 책갈피 배포, '앵무새 죽이기' 수필 공모, 라이코밍 카운티 Big Read 2007 웹 사이트 (지역사회: Lycoming County Library System - Williamsport, 펜실베이니아 주), 책 전시회, 영화와 책 토론(지역사회: El Paso Public Library - El Paso, 텍사스 주), 1930년대 빵집-이발소 사진전시회, 작가 티모시 타이슨과의 대화 및 '앵무새 죽이기' 강연, 중고교의 '앵무새 죽이기' 문학수업 및 역사프로젝트(지역사회:

A-B Tech Community College Foundation for Together We Read - Asheville,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침에 머핀을(Muffins in the Morning)"(지역사회: East Baton Rouge Parish Library - Baton Rouge, 루이지애나 주) 등이 있다.

여기에 열거된 열 한 개의 행사는 루이지애나 주 베이튼 루지,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쉬빌, 펜실베이니아 주 윌리엄스포트, 텍사스 주 엘 파소 네 곳에서 2월 1일 하루 동안 열리는 것들이다. 단 하루 행사의 예를 갖고,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행사가 도서관 안팎에서 열리기도 하지만, 지역의 대학, 학교 등에서도 행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및 역사 수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는 '한 책' 운동 주관자와 지역사회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평범한 형태의 행사도 조금만 '비틀면' 매우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거듭 나게 되는 예를 볼 수 있다. 먼저 북마크, 텐트 설치, 웹 사이트 구축 등과 같은 것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The Big Read' 기간 동안 내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작가와 대화, 영화와 책 토론, 수필 공모 등도 많은 곳에서 진행되는 형태이고, 도서관에서의 토론, 전시회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토론을 하되 아침식전에 도서관에 나와 머핀을 함께 먹으며 얘기한다든지, 전시회를 하되 하필이면 1930년대 빵집과 이발소를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평범한 행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The Big Read'가 대개 4-6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에서 전체 기간에

행해지는 프로그램을 전부 분석해 보면, 지역 사회의 창의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문화적 활동 및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였고, 그런 만큼 다양한 시민집단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던 다른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를 들 수 있다. 200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함께 읽으면서,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이백 여 도서관들에서 거의 천 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적이 있다. 물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겹치고, 도서관의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들이기도 했지만, 같은 책을 읽으면서 각 지역의 각 도서관이 자기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일반적인 토론회, 패널 토론, 작가와의 만남, 전시회 등과 더불어 작품 및 그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특별행사만 예를 들어도 캘리포니아 주립문서보관소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대공황기의 캘리포니아”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대공황당시의 문서 및 이미지 전시회, 스타인백 작품의 발췌극 공연(“Voice in the Well, Los Angeles”), 작품 속 배경인 위드패치 연방 캠프 관련 다큐멘터리 TV 방영(“Television in October: Weedpatch Camp Featured on California’s Gold”), 책 전문의 24시간 낭독회(24-Hour Read-a-Thon at Krispy Kreme), 전문 사진작가 도로시아 랭의 작품 전시회(“About Life: The Photographs of Dorothea Lange”) 등 삼십 여개가 여러 도시, 혹은 주 전체의 곳곳에서 열렸고,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CCH 2002).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과 홍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ALA 지침’(2003)은 ‘한 책’ 운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극단, 현악 앙상블, 재즈밴드, 예술전시장, 박물관, 역사학회, 전문직 단체, 각급 학교, 대학, 무용단, 문학단체, 문예지, 종교기관 등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의 기관, 시설, 단체들을 열거한 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후원하고 참여하는 동반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한 책’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협력 양상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 책’ 독서운동의 단계별 실천과정의 핵심요소인 목표의 설정, 책의 선정, 독서와 토론, 및 프로그램이라는 네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주요한 ‘한 책’ 운동사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시애틀, 시카고, 전국대상의 ‘The Big Read’,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 청주 등의 ‘한 책’ 독서운동 사례와 더불어 그밖에 다른 지역사회의 예를 통해 발견한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책’ 독서운동의 첫 단계인 목표의 설정은 대상 독자층의 정의, 책의 선정, 행사와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에 영향을 미친다. 목표는 프로그램 목표, 독자층 목표, 주제/컬렉션 목표 및 지역사회 목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에 자주 나타나는 키워드는 리터러시와 커뮤니케이션이다. 전형적 목표의 몇 가지 예는 '한 책' 독서운동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 사람들 간 대화, 소통,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초기의 시애틀이나 시카고가 천명한 바이지만, 이후에 수많은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공유 및 공감되어, '한 책' 독서운동의 핵심적 아이디어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 '한 책'을 선정하는 조건으로는 작품성이나 작품 자체의 메시지도 중요시하지만, 강력한 쟁점, 인물, 주제 등에서 비롯된 토론의 가능성에 많은 비중을 둔다. 지역사회마다 설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은 '한 책' 운동의 목표와 대상 이용자층, 지역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정되는 '한 책'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 한다. 그동안 많이 읽힌 '한 책'의 성격은 이미 분석된 바 있는데(윤정옥 2005), 2005년 말 문학대전 읽기를 강조한 전국대상의 '한 책' 독서운동인 'The Big Read'가 시작되어 많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면서, 최근에는 '앵무새 죽이기,' '분노의 포도,' '무기여 잘 있거라'와 같은 미국문학 명작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 책' 독서운동의 핵심활동인 독서와 토론에는 '안내서'라는 도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내서는 포맷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책, 관련 주제 및 '한 책' 운동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토론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각각의 '한 책'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비평, 토론질문, 참고문헌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의 결과물로서, 여러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점과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문화적 콘텐츠로서 가치를 갖게 되기도 한다.

넷째, '한 책' 독서운동은 "창의적이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은 '한 책' 자체의 내용과 주제에 집중하는 것과 '한 책'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다. 많은 '한 책' 독서운동에서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 책'에 집중하여 재구성하기도 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나 'The Big Read'에서처럼 '한 책'을 매개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예를 볼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시행과 수용 정도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특정성이 반영되고(Fuller and Sedo 2005), '한 책' 독서운동의 운영주체나 선도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개인, 기관, 단체 등의 파트너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협조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같은 '한 책'을 읽은 여러 지역사회에서 상이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구성하여 누적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문화적 콘텐츠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

'한 책' 독서운동은 불과 십 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수백여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다양한 성격과 규모로 수행되면서,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한편, 책을 선정하고, 읽고 토론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지역사회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드러나는 문화적 활동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는 몇 개의 '한 책' 독서운동 사례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만을

주로 살펴보았을 뿐, 실제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의 내용 면에서 보이는 개별적이며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들에서 암시되는 ‘개별성’과 ‘고유성’은 향후 다른 연구를 통해, 각

사례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같거나 다른 점이 특정한 지역사회의 상이한 문화적 또는 사회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숙정. 2004.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BBS(Busan Book Start)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박미영. 2006. “지역주민과 함께 여는 공공도서관의 독서활성화 방안.” 2006년도 서울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2006년 10월 26일: 정독도서관 시청각실), 55-64.
- 박미희. 2004. ‘한 도시 한책 읽기 운동’ 서산시 시범사업 사례.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양동의. 2004.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추진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원북원부산운동 추진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2005.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부산 사람 풍경 부산 풍경. 2005년도 원북 원부산 선정도서 『사람풍경』 토론안내서.
- 원주평생교육정보관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도서선정의 원칙.”
〈<http://www.bookone.or.kr/intro/intro.php>〉
-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5-66.
-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4.
- 윤정옥. 2006.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통한 독서진흥전략. 『2006년도 서울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2006년 10월 26일: 정독도서관 시청각실), 13-29.
- 이권우.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의미: ‘읽고 토론하기’의 힘에 대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5-11.
- 이권우.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과와 과제. 『圖書館文化』, 45(6): 22-24.
- 이용재. 2006a. “국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 비블리아학회지』, 17(1): 5-25.
- 이용재. 2006b. 책 읽는 서울, 미래를 위한 동력: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중심으로. 2006년도 서울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2006년 10월 26일: 정독도서관 시청각실), 1-12.
-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a.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압록강은 흐른다』 워크북』. 청주: 동 위원회.
-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b. 『책 읽는 청주, 시민독서운동 사업보고서: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청주: 동 위원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동 협회.
- All America Reads. 2003.
<<http://www.allamericareads.org/>>
[Access 2007.2.1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www.ala.org/ala/ppo/onebookguide.pdf> [Access 2007.1.18]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2003b.
"One Book, One Conference: Margaret Atwood's The Handmaid's Tale."
[Access 2007.1.18]
<<http://www.ala.org/ala/ppo/grantsandevents/ppoannual2003/onebookoneconference.htm>>
- BBC. 2003. "The Big Read."
<<http://www.bbc.co.uk/arts/bigread/vote/>>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CCH). 2002. "California Stories: Events"
<<http://www.californiastories.org/programs/events.htm>> [Access 2007.1.18]
- Chicago Public Library(CPL). 2001.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Fall 2001 Final Report."
[Access 2007.1.18]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pressroom/onebookfinal.html#1>>
- Chicago Public Library(CPL). 2001b.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Discussion Questions and Activities."
[Access 2007.1.18]
<<http://www.chipublib.org/003cpl/onebook/questions.html#activities>>
- Chicago Public Library(CPL). 2002. "Final Report: Night. Spring 2002 Final Report. Night by Elie Wiesel."
[Access 2007.1.18]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oboc/nightfinal/nightfinal.html>>
- Chicago Public Library(CPL). 2006. "One Day in the Life of Ivan Denisovich. One Book, One Chicago. 2006 Spring."
[Access 2007.1.18]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oboc/ivan/ivan.html>>
- Fuller, Danielle, and DeNel Rehberg Sedo. 2004. "Minireport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f One Book, One Com-

- munity, Kitchener/cambridge/Waterloo, ON, Canada, 9 November 2004.”
- Fuller, Danielle, and DeNel Rehberg Sedo. 2005. “Mass Reading, New Knowledge?: Reading for Community in Contemporary Southern Ontario.” Presentation delivered at “Material Cultures and Creation of Knowledg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The Centre for the History of the Book), 22-24 July, 2005.
- Henighan, Stephen. 2002. *When Words Deny the World: The Reshaping of Canadian Writing*. Erin, ON: Porcupine’s Quill, p. 166. 재인용: Fuller, Danielle, and DeNel Rehberg Sedo. 2005. “Mass Reading, New Knowledge?: Reading for Community in Contemporary Southern Ontario.” Presentation delivered at “Material Cultures and Creation of Knowledg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The Centre for the History of the Book), 22-24 July, 2005.
- Lee County, Florida. 2006. “One Book, One Community: Discussion Guide.” <http://www.lee-county.com/library/specialevents/OBOC_2006/DiscGuide_06.htm>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2007.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html>> [Access 2007.2.13]
- MacSkimming, Roy. 2003. *The Perilous Trade: Publishing Canada’s Writers*. Toronto: McClelland & Stewart, p. 373. 재인용: Fuller, Danielle, and DeNel Rehberg Sedo. 2005. “Mass Reading, New Knowledge?: Reading for Community in Contemporary Southern Ontario.” Presentation delivered at “Material Cultures and Creation of Knowledg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The Centre for the History of the Book), 22-24 July, 2005.
- Michalik, Candice. 2003. “One book, One City, One Great Experience!” *Virginia Libraries*, 49(4): 7-9.
- Midcoast Community Read. 2007. “Community Read 2007.” <<http://www.midcoastreads.com/>> [Access 2007.2.1]
- Naperville Public Library. 2007. “Naperville Reads 2007.” <<http://napervillereads.org/>> [Access 2007.2.1]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2006a. “The Big Read.” <<http://www.neabigread.org/>> [Access 2007.2.1]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2006b. “The Big Read. Special Messages.” <http://www.neabigread.org/special_

- messages.php> [Access 2007.1.18]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2006c. "The Big Read. To Kill a Mockingbird. For Discussion." [Access 2007.1.18]
<<http://www.neabigread.org/books/mockingbird/mockingbird06.php>>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2007b. "The Big Reads: Calendar of Community Events."
<<http://www.neabigread.org/events.php>> [Access 2007.2.1]
- Rodney, Mae L. 2004.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The "One Book, One Community" Experience." *C & RL News*, 65(3): 130-2, 155.
- Sumner, Ward. 2004. "One Jackson, One Book." *Mississippi Libraries*, 68(1): 3-5.
- University of Birmingham. 2006. "Beyond the Book: Mass Reading Events and Contemporary Cultures of Reading in the UK, USA and Canada."
<<http://www.beyondthebookproject.org>> [Access 2007.1.18]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SPL). 2002. "'What If All Kids Read the Same Book?' Study Guide."
<http://www.allkidsread.org/studyguide/_holes.pdf> [Access 2003.7.1]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SPL). 2003. "Previous Years' Featured Works." [Access 2003.5.9].
<<http://www.spl.lib.wa.us/wacentbook/seattleread/samebookarchive.html>>
- Watkins, Christine. 2003a. "Grassroots Report: Hundreds of Communities, Hundreds of Books." *American Libraries*, 34(2): 55.
- Watkins, Christine. 2003b. "Grassroots Report: One Country, One Conference, One Book." *American Libraries*, 34(3): 83.
- Winnetka-Northfield Public Library District. 2007. "One Book Two Villages."
<<http://www.onebooktwovillages.org>> [Access 2007.2.1]